

올바른 번역, 문화적 지평 넓히는 길

인문학 부흥 위해 '동서고금' 의 정확한 번역 시급
번역 통한 '소통' 으로 독자들 문화적 반경 넓혀야

'오역·비문 다반사.. 제대로 된 번역물 아쉬워'

한국출판연구소가 발표한 자료 <번역출판의 현황>에 따르면, 국내 발행 도서 중 번역서의 비율은 28.5%로, 지난 1990년대 중반 15%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도 번역서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독일 10%, 일본 5%, 미국 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번역서의 발행비율과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문화와 문화가 만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오역과 비문으로 얼룩진 것이 우리 번역의 현실”이라는 비판이 대세인 것을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이 우리 실정이다. 또한 노벨문학상 수상작이 가장 먼저 번역·출간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번역의 정확성 또한 떨어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 출판사 대표는 “번역서들의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세계 10위 출판대국을 자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도 “번역서가 많다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번역서를 내지 못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양서 번역을 위해 지원하는 유일한 창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명저번역지원' 사업이 전부이다. '학문의 기초이론과 선현들의 사상 등이 담긴 동서양의 명저를 체계적으로 번역, 보급하여 번역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 인문학 부흥의 전기를 마련' 하는 것을 목적이지만 지원 예산은 고작해야 2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10년 간 단독번역 출판물 1종 이상이면 누구

나 지원할 수 있어 질적인 면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우리 것' 해외 알리기 위한 지원·노력 늘려야

한국문학이 해외에 처음 소개된 것은 1889년으로, 구비문학작품집인 《한국민담집》(Korea Tales)이 미국에서 번역·출간되었다. 구비문학이 아닌 본격 문학작품으로는 김만중의 《구운몽》(The Cloud Dream of Nine)이 1922년 영국에서 출간되었다.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의 역사는 120년을 바라보지만, 국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외국어 번역서와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1973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1974년 번역지원사업을 시작했고, 1980년 해외 출판을 시작했다. 현재는 한국문학번역원(옛 한국문학번역금고)에서 한국문학의 번역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5년 말 현재 번역 출간된 작품이 영어 188건, 불어 113건, 독어 83건 등 총 531건이고, 출판 중인 작품이 24건, 번역 중인 작품이 102건이다.

민간에서는 대산문화재단이 1993년부터 한국문학 번역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1993년부터 2005년 말까지 132권의 번역·출판을 지원했다. 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박현준 씨는 “해외문학 번역지원 사업은 해마다 4대 1의 경쟁력을 보일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문학을 번역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외국인들이 번역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면 한국문학이 해외에 더 많이 소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한국문학 번역물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솜한 난관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관을 장식했던 ‘한국의 책 100’ 중에서 대략 20%는 번역자를 못 만나거나, 마땅한 출판사를 찾지 못해 제 구실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년이 채 못되는 기간에 지나치게 어려운 책을 번역할 수도 없어 포기한 책도 있었다.

임프리마 코리아 이구용 상무는 “수입되는 책의 경우 국내에 어느 정도 번역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만 해외에 나가면, 현지인 역자를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이나 유학생들이 연결되면 좋지만, 그들은 출판의 생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지인 역자를 만나다 해도 국내에서 줄거리나 책의 일부분, 작가의 면면을 해당 언어로 번역한 자료를 보내줘야 하는 데 인력이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상무는 “성과물이 계속해서 나오면 인력을 충원할 수 있지만 1년에 한두 권을 위해 인력을 충원할 출판사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한문의 한글화 통한 자료의 민주화’, 고전번역도 시급

최근 우리 선조들의 생활사를 담은 역사서들의 출간이 활기를 띠면서 고전번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대장금>과 한국 영화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왕의 남자>도 고전문헌의 단편적인 기록에 작가적 상상력이 더해진 것으로, 고전문헌의 번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야기다. 그러나 드라마와 영화가 승승장구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고전문헌의 번역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신승운 교수가 발표한 연구자료 <한국 고전 번역 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승정원일기》 등 국고문헌 3,300여 책, 《경부》《사부》 등 일반고전 4,600여 책 가운데, 국고문헌은 800여 책, 일반고전은 600여 책만이 번역된 상태이다. 2005년 한해 민족문화추진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이 수행한 번역량이 60여 책인 것을 감안하면, 고전번역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는 한 남아있는 국고문헌 2,500여 책과 일반고전 4,000여 책을 1차 번역하는 데만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신승운 교수는 “우리 역사와 문화, 예술 전반에 대한

기술이 90% 이상 한문으로 되어 있다.”며 “지금 고전번역 사업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은 물 건너간다”고 단언했다. 신 교수는 고전번역 사업에 ‘민족 문화 창달’이니 하는 거창한 목적을 달지 말고 “한문의 한글화를 통한 자료의 민주화”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글로 번역하면 자료의 이용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연구하고 싶어도 번역할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했던 문헌에 대한 논문과 책들이 자연스레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대중역사서들이 많이 출간되는 이유도 고전번역에 힘입은 바 크다.

서양고전 번역, ‘독서시야 넓히는 차원’ 서 봐야

서양고전 번역도 한문고전에 비해 나올 것이 없다. 서양고전의 대부분이 원전 번역이라기보다 중역(重譯)이나 편역(編譯)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자료에 따르면, 근대 이후 국내에서 나온 서양 고대철학 번역서 179종 중 81.5%인 146종이 중역본이다. 최근 몇 해 동안 <그리스·로마 신화> 등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서양 고대문학의 경우도 대부분 중역이나 편역이다.

1976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문고본 번역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서양고전 원전 번역에 힘쓰고 있는 단국대 독문학과 천병희 명예교수는 서양고전 번역의 의미를 “우리나라 독서인구의 시야를 넓히는 작업”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번역이 그렇지만 특히 서양고전의 번역 작업은 “독자들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천병희 교수는 서양고전의 원전 번역을 강조한다. 편역은 말을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은 뺄 수도 있고, 간추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개 편역이라는 사전 설명이 없는데, 이는 명백하게 독자를 속이는 기만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영국과 독일의 서양고전 번역은 한 문장도 빠지지 않고 완전하게 번역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모든 것은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와 문헌을 제공하는 것도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서양고전을 번역하는 후배들에게 “원전 번역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임에 틀림없지만 임의로 줄이거나 없는 것을 넣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

취재_장동석 기자